20代 퍼스트레이디→선거의 여왕→첫 여성대통령·첫 파면

박근혜의 영욕

박정희 쿠데타 2년만에 靑 입성
육영수 서거 후 최순실과 인연
박정희 피살 뒤 18년간 칩거
1997년 보선 통해 국회 등원
'노무현 탄핵' 역풍 위기 맞기도

대통령 취임 전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여년 정치인생에 대한 평가는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 '선거의 여왕' 등이었다. 하지만, 최초의 여성 대통령 '박근혜'는 최초의 탄핵 대통령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 **정치 입문 전**=박 전 대통령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1년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지 2년 만인 1963년 '영애'(令愛)로서 청와대에 들어갔다. 그는 어린이·학창 시절을 청와대에서 보내다가 1974년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지만 같은 해 광복절 경축행사장에서 어머니 육영수 여사가 피살당하자 급히 귀국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박 전 대통령은 영애에서 퍼스트레이디로 역할하게 된다. 국정농단의 장본인인 최순실씨와의 인연도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수행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지난 1979년 10월 26일 서거하면서 퍼스트레이디로서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한 달가량 후 서울 신당동 자택으로 들어가 18년간 긴 칩거생활을 시작한다. 이 기간에 육영재단 이사장과 정수장학회 이사장, 영남대재단 이사장 등으로 활동했지만 정치와는 거리를 뒀다.

◇ **정치인 생활**=박 전 대통령은 1997년 11월께 정치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지지 선언을 한 뒤 선거운동을 했다. 다음 해인 1998년에는 본인이 직접 대구 달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 국회에 입성했다.

박 전 대통령에 정치권에서 지도자로서 두각을 보인 것은 지난 2004년부터 2년 3개월간 당 대표를 역임하면서다 당시 한나라당은 '차떼기' 불법 대선자금 사건 수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은 상황이었다. 이때 박 전 대통령은 천막당사를 설치하고 천안 연수원을 매각하는 등 파격 행보를 보이며 대선주자로 발돋움하게 된다.

특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집권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을 상대로 '40대0' 완승을 해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명박 당시 후보에게 패한 뒤에는 비주류로 밀려났다. 그는 한나라당이 2011년 서울시장 보선 패배와 디도스 공격 파문 등으로 다시 한 번 위기에 처하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당 전면에 재등판했다.

그는 이때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는 등 또 한 번 파격 행보를 보였고 그 결과 2012년 4월 총선에서 152석의 과반의석을 확보했다.

이후 압도적인 지지율로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선출되고 제18대 대선에서 '최초 여성 대통령'이자 '최초 부녀 대통령'까지 됐다. 1979년 청와대를 떠난 지 34년 만에 대통령으로 재입성한 것이다.

그러나 영광도 잠시, 임기 4년 차인 2016년에 '최순실 국정농단'이 터지면서 국내 역사상 최초로 탄핵받은 대통령으로 기록에 남게 됐다. 파면으로 자연인 신분이 돼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그는 이제 피의자 자격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비참한 상황을 맞게 됐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수첩공주'의 불통이 '8 대 0' 탄핵 불렀다

최순실 국정농단 단초 제공

일명 '수첩공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2월 취임한 후 내내 '불통' 논란에 휩싸여 오다가 탄핵이라는 참사를 맞았다.

박 전 대통령은 늘 기자회견 대신 수석비서관 회의 같은 내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하고 싶은 말만 했을 뿐이다. 불통은 토론 없는 일방통행식 정치와 비밀주의를 낳았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단초를 제공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늘 수첩을 들고다니며 기록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 '수첩공주'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수첩에 적힌 인물을 중심으로 등용하다 보니 늘 인재난에 허덕였다.

'수첩 인사'는 2013년 취임 전부터 논란을 낳았다.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 12명의 인사가 각종 비리의혹으로 줄줄이 낙마했다. 같은 해 5월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첫 방미 일정을 소화하던 중 주미 한국 대사관의 파견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휘말려 물러났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여러 계층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야 할 수첩에 자신이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는 것만 담는 데 그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충성하는 자는 버리지 않는다'는 박 전 대통령식 용인술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초래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도착해 지지들의 환영을 받으며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일몰 후 청와대 퇴거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 결정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퇴거했다.

박 전 대통령은 12일 오후 7시15분께 삼성동 사저로 이동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출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출발 전에 청와대 관저에서 수석비서관 등 참모들과 만난 뒤 녹지원으로 나와 청와대 직원들에게 인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애초 이날 6시30분께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청와대 참모·직원과의 인사가 늦어지면서 출발 시간이 지연됐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일몰 후 청와대를 떠나게 됐다.

박 전 대통령 차량은 검은색 승용차 및 카니발 7대 안팎으로 구성됐으며, 독립문, 서울역, 삼각지, 반포대교를 거쳐 삼성동 사저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의 사저 복귀가 결정된 12일 오후 사저 주변에는 수백명의 지지자들이 몰려 경찰이 경비를 강화했다.

이날 오후 5시께 박 전 대통령이 사저로 복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곳에 몰려든 지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등 구호를 더욱 크게 외쳤다. 또 일부는 태극기를 흔들며 "탄핵무효"를 외치기도 했다. 경찰 추산 800여명의 지지자들이 삼성동 사저 인근 골목길에 몰렸다.

사저 안팎은 이날 아침 일찍부터 주인을 맞을 준비로 분주한 모습이었다. 오전 6시 40분께 나타난 장판을 교체하는 인부들을 시작으로 대형 TV와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인터넷 설치기사 등이 사저에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사저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접한 지지자들은 오전부터 모여들기 시작했고 정오쯤이 되자 사저 앞 골목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손에 쥔 이들로 가득해졌다.

언론이 편향된 보도를 한다는 불만에 가득 찬 지지자들은 취재진에 극도로 예민한 모습을 보였다.

/연합뉴스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점포
• 신가동 4층 상가건물(일반상업지역) 대308㎡ 건861㎡ 매15억
• 송정동 2층 상가건물 대385㎡ 건물500㎡ 매 13억
• 월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28억원(보2억원, 월1,200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50㎡ 현 의류점 입점 매 13억원 (보1억5천/월5백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70㎡ 현 신발대리점 입점 매 20억원 (보5천/월9백만 포함)
• 월계동 3층 상가점포 500㎡ 매 8억5천 (학원, 독서실, 임대가)
• 산정동 4층 상가건물 1,000㎡ 매 24억원(보1억6천/월1,100만 포함)
• 수완동 5층 상가건물 750㎡ 매 23억원(1층 약국입점)

상가주택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00㎡ 건500㎡ 매 13억5천 (보8천/월524만원 포함)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246㎡ 건397㎡ 매10억5천 (보3천2백/월356만원 포함)
• 상기 외 다수 물건 보유. 상담환영

토 지
• 산정동 생산녹지, 창고용지 3,810㎡ 20억
• 화정동 대지 967㎡ 매 35억원
• 장성군 삼서면 홍정리 대지 1316㎡ 매1억4천(지대높음, 남향)
• 담양군 남면 학선리 대지 1390㎡ 매 3억1천만원
•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창고용지 4,500㎡ 매 21억원

상가임대
• 장덕동 4층 빈 상가 830㎡ 4천/월450만(매매가)
• 장덕동 키즈카페(자동차체험형) 300㎡ 5천/월365만
• 수완동 대형 패밀리레스토랑 1200㎡ 3억/월1,500만

매물 접수, 상담 환영
☎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고려수지침을 연구하시면 평생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통 서금요법·고려수지침 강좌
정통 수지침은 고려수지침으로 1975년에 유태우 박사가 처음으로 개발 창시하였습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고려수지침은 현재 10개 국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서금요법이란 수지침 외의 서암뜸, 기마크봉, 서암온열뜸기, 아큐빔, 금봉 등을 말합니다. 고려수지침·서금요법은 한의약이 아니고 한국의 새로운 의학입니다.
(고려수지침 강좌는 영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페르시아어, 히브리어, 중국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자신과 가정, 단체의 평생 건강관리에 필요하고 질병을 속히 낫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부작용, 후유증, 위험이 없습니다.
고려수지침·서금요법은 자원봉사에 좋으며 외국 이민, 귀농, 농어촌 생활에도 꼭 필요합니다.
우측의 책자를 구입하시면 무료 세미나에 참석하여 배울 수 있고, 월간 서금요법을 발송해 드립니다.

특가 48,000원
유태우 원저 / 4×6배판 / 508면 / 정가 60,000원
유태우 원저 / 4×6배판 / 367면 / 정가 53,000원
(주)고려수지침 ■문의처 : (02)2231-3000 ■통신구입처 : (02)2233-0841~2
■인터넷 쇼핑몰 www.seokeumshop.com (고려수지침학회중앙회를 검색하세요.)
■광주지회 062)224-5343 ■전남지회 062)525-0001 ■광주동부지회 062)227-3407 ■광주북부지회 062)512-2170
■광주남부지회 062)673-8492 ■광주광산지회 062)956-2237
※타 지방에서는 전국의 160여 지회를 이용 바랍니다.